

# 광주 유권자 지방선거 투표환경 대체로 만족

## 시 선관위, 500명 만족지수 측정 90.7점

### 선거정보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유권자들은 투표환경 등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투표만족지수(VSI·Vote Satisfaction Index)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90.7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정보 접근성 ▲투표장소 접근성 ▲투표절차 용이성 ▲투표환경 만족도 등 4개 지표를 만들어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4개 지표 가운데 투표장소 접근성이 9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투표절차 용이성 94.6점, 투표환경 만족도 91.9점 등을 기록했다. 선거정보 접근성은 79.0점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투표만족지수는 ▲동구 93.0점 ▲광산구 91.5점 ▲북구 91.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구와 남구는 각 89.5점, 89.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92.1점)이 여성(89.6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8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91.9점 ▲자영업 91.3점 ▲블루칼라 91.0점 ▲화이트칼라 및 주부 90.3점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8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투표만족지수는 투표서비스에 대한 대표성 있는 설문용 토대로 선거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에 따라 투표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광주시선관위가 투표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 개발했다.

광주시 선관위 정영택 사무처장은 “투표만족지수 측정을 통해 투표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취약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유권자에게 더욱 폭넓은 투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아침산행을 위해 집 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다. 산자락에 연분홍 상사화가 시들고, 가을의 전령사인 연보랏빛 별개미취 꽃이 화들짝 피었다.

구절초, 속부쟁이 꽃과 함께 통칭되는 들국화 중에서, 별개미취 꽃이 가장 먼저 가을향기를 살며시 내뿜는다. 우리 마을 70대 부부 세 쌍은 날마다 오전 6시에 마을회관 앞에 모여 아침산행을 한다.

모두 60대에 은퇴, 귀농해서 부부끼리만 살고 있다. A씨는 대학교수, B씨는 공무원, C씨는 서울에서 무역업을 했다.

20여분 쯤 험근거리며 가파른 임도를 올라가 안개 스며거리는 소나무 오솔길로 접어들자, 상큼한 솔향기가 바람에 실려 콧속을 간질인다.

일행은 40분쯤 걸어 산등성이 편편한 소나무 숲속 쉼터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린 다음 ‘노인들의 산상 시사토론’을 시작한다.

아침마다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토론 주제는 세계경제에서부터 국내정치, 경제, 사회문제 외에 손자 교육, 건강, 죽음, 음식, TV연속극, 마을 이야기 등 다양하다.

어제는 미국 퍼거슨에서 10대 흑인청

막히고 있었어.”

A : “대통령이 나서야죠. 유민아빠 쪽으면 누가 책임지죠? 교황님도 다섯 번이나 만났는데, 이럴 때 자애로움을 보여주면 안 되냐요. 세상에, 목숨 건 유민아빠 진정성을 의심하더니.”

F :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교황님 말고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들 해요.”

C : “교황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밖에 뭐가 또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죠.”

C : “정황원 총리는 어디 갔나? 왜 최부총리가 뜬금없이 담화를 발표하는지 모르겠어.”

D : “그나저나, 돈 먹은 국회의원놈들 도망 다니는 꼬라씨러니니 잠 한심스러웠어요.”

E : “유병언의 1번 가방에 로비 명단이 들어있을 거라는데, 검찰은 왜 찾지 않은 건지...”

A : “주말에 장례 치른다는데, 이제 여기서 의원투성이 유병언 사건도 결국 종결이구만.”

B : “남정필은 지금 출근하나요? 병영폭력 아들 두 번째 영장도 또 기각되었

## 교황님 떠나 간 후...

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일로 벌어진 흑인들 시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동안은 매일 유병언의 의사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교황님 다녀간 후’가 주제로 정해졌다. 6명 모두 가톨릭 신자다.

A : “교황님 계실 때는 온 나라가 평화로웠는데 비행기 뜨자마자 시끄러워지고 있었어.”

B : “교황님 계실 땐 행복했어. 비신자들도 교황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요.”

F : “세월호법 때문에 정국이 막혔어. 진실 밝히자는데 유족들 요구 좀 들어주면 안 되냐?”

D : “박영선 대표가 너무 쩌네요. 사면조가 되었다니까요. 박영선 대표를 도울 생각은 없고 흔들려야만 하디. 박영선 뜨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렇까요? 중진들은 뭘 하고 있대요?”

E : “문재인은 왜 그러고 있지? 단식하면서 정국 풀 해법 찾고 있냐?.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B :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불구경만 해서는 안 돼. 3자협의체에 참여해서 함께 이 난국을 풀어야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투쟁으로 정치가 더 확

다면서요?”

E : “아까운 내 손자 놔들 군대 보내기 참말로 무서워요. 대한민국 어찌까.”

C : “유병언 사건이 잠잠해지니까 언론에서는 김수환 길거리 음란행위로 얼 싸구려 하고 막춤을 추더구만. 성도착중 장애라는데 인간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줘야지.”

E : “교황이 계속 한국에 계신다면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때 소나무 숲에서 장미 한 마리가 푸드득 날개를 치고 날자, 모두들 무개 먹다 들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변을 살펴본다.

교황님이 돌아간 지금, 우리시대 정신적 리더였던 김수환 추기경의 빈자리가 새삼스럽게 크고 허전하게 느껴진다.

마을에 내려오니 90세 살지매과 순창대 할머니가 추석 쇠려고 광주로 파마하러 갈다면서 휘적휘적 길을 나서고 있었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어야 하는 두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름달처럼 아름답다.

그리고 보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추석 때 내려올 손자들 생각해 노인들 얼굴에도 보랏빛 꽃이 핀다. <소설가>

## 지방 정가

### 시립수목원 조성 차질 우려

문태환(새정치·광산 2·사진)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26일 열린 광주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이 올해말 완료되는 시점에도 토지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시립산소림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1차 사업기간인 지난 5년간 총사업비 370억의 30%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사업 승인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향후 3년간 남은 267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입영장병 부모들과 대화 나누는 육참총장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대를 방문. 취임 후 처음으로 입영 장병 부모들을 만나 군생활 개선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북구의회 “기초연금 예산 확대”

광주 북구의회의장 심재섭(사진)은 26일 “정부는 기초연금 및 보육예산 국비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전 의원을 성명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올 7월부터 정부는 기초연금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동일한 국비부담율을 적용함으로써 2015년까지 1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



## 전남 지자체 상수도 여건 열악

### 누수율 20% 넘고 수도물 요금은 전국 최고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상수도 여건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은 20%가 넘고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인 유수율은 크게 낮았으며, 요금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26일 전남도와 내고장 알리미 등에 따르면 도내 수도물 누수율은 22.99%로 전국 평균 10.3%보다 배 이상 높았다.

누수율(漏水率)은 정수장에서 보낸 수도물이 가정에 도달한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수장에서 물 100t을 보내면 77만 쓸 수 있는 셈이다.

연간 누수량 4600여만을 돈으로 환산하면 2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군

간 누수율 편차도 최대 37%포인트에 달했다.

누수율은 목포시가 11.4%로 가장 낮았으며 진도군과 보성군은 48.9%와 46.6%나 됐다. 30% 이상인 지자체도 구례(39.6%), 신안(38.6%), 함평(35.7%), 곡성(35.2%) 등 8곳이었다.

수도물 총공급량 중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인 유수율(有收率)은 68%로 조사됐다. 유수율은 누수율과는 반대로 개념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물값을 낮출 수 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은 84%로, 유수율이 60%대는 강원(64%), 전북(65%), 경

북(67%), 세종(68%) 등이다.

전남도내 상수도 평균 요금은 611원으로 울산(692원)과 전북(712원) 다음으로 비쌌다.

시·군 간 상수도 요금 편차도 커 곡성군은 m당 336원인 반면 완도군은 742원으로 배 가량 차이가 났다.

400원대인 시·군은 함평(411원), 구례(425원), 무안(434원), 담양(487원) 등이었다.

전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95%보다 낮은 80%로, 세종시 71%, 충남 79% 다음으로 낮았다.

새누리당 주영순(비례)의원은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다”며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의 개와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신문으로 채웁니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